

보성·구례·고흥 교통문화지수 전국 하위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보고서

보성지역 교통문화지수가 전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성·구례·고흥 등은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도 낮은 것으로 평가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성의 교통문화지수는 73.64점으로 전남 21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보성은 또 조사 대상인 전국 80개 군 지역 중 70위에 머물렀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횡단보도점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율, 신호준수율,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착용률 등) 분야와 교통안전(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음주 및 과속운전 사망자 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보행행태(횡단보도 신호준수율, 횡단보도 횡단중 스마트폰기 사용률) 등11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전국 평균 교통문화지수는 81.56점이었다.

◇보성·구례·곡성, 교통안전 하위권=교통문화지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안전띠 착용률 등 크게 미흡

교통안전 의식 높일 대책 필요

해남·영암·강진은 최상위권

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의식 수준 등을 드러낸다. 특히 교통문화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교통 의식을 높일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보성의 경우 운전행태(48.17점), 교통안전(12.92점), 보행행태(12.55점) 등 73.64점으로 전남 2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안군은 현장 조사가 어려워 전체 순위에서 빠졌다.

보성은 특히 운전행태 분야에서는 안전띠 착용률(78.04%), 방향지시등 점등률(78.89%) 등이 낮았다.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아직도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셈이다. 지자체 교통안전노력도 평가는 3.83점에 불과했다.

구례군도 79.56점으로 전남에서 19번째에 머물렀다. 구례군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준수율(67.65%)이 특히 낮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스마트폰기를 사용하는 비율도 11.76%로 나타났다.

■2017년 전남시·군 교통문화지수

구분	순위 도(전국)	점수 (100점)	운전행태 (55점)	교통안전 (30점)
목포	11(22)	82.77	48.64	20.59
여수	20(48)	74.86	42.18	19.61
순천	4 (3)	88.69	48.92	26.48
나주	5 (4)	87.02	51.54	22.43
광양	8(16)	84.03	46.71	25.19
담양	6 (8)	84.89	49.75	21.36
곡성	10(16)	83.25	50.70	19.14
구례	19(41)	79.56	49.43	18.96
고흥	18(40)	79.58	45.76	20.41
보성	21(70)	73.64	48.17	12.92
화순	16(36)	80.19	50.44	16.38
장흥	15(28)	81.51	51.00	17.36
강진	3 (3)	88.71	52.88	21.95
해남	1 (1)	88.90	52.78	22.65
영암	2 (2)	88.84	52.08	22.83
무안	12(20)	82.55	48.91	20.60
함평	9 (13)	83.95	51.99	17.46
영광	13(23)	82.18	46.30	23.32
장성	7 (11)	84.18	50.24	20.81
완도	14(26)	81.90	45.28	23.34
진도	17(38)	80.02	51.42	14.70
전남도 전국 8위	82.56	49.68	20.23	

※ 전국:30만 이하 시(507개), 군(827개)

고흥도 18위에 그쳐 주민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흥은 안전띠 착용률(77.03%),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56.04%) 등으로 낮았다.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 2명 중 한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명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주민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구 30만명 이하인 전국 49개 시 중에는 여수시가 전국 48위(전남 20위)로 상주 다음으로 가장 점수가 낮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남·영암·강진은 상위권=군 단위 지자체로는 해남군이 88.90점을 획득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영암군과 강진군이 2, 3위를 뒤를 이었다. 담양(전국 8위), 장성(전국 11위) 등의 교통문화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의 경우 안전띠 착용률(98.36%), 신호준수율(98.71%),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7.30%),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7.70점) 등으로 높았다.

한편, 매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표로 만든 교통문화지수는 2013년부터 최근 5년 동안 76.04점, 76.70점, 78.11점, 81.38점, 81.56점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곡성 도깨비마을 12번째 창작동요음반

곡성 섬진강 도깨비마을에서 12번째 창작동요음반을 냈다.

도깨비마을은 도깨비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국제세미나와 월드요들 페스티벌 국제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가는 문화예술기업이다.

도깨비마을은 지난 17년 동안 꾸준히 창작동요 음반을 발매해 올해 12번째 결실을 보았다.

특히 이번 음반은 9개 출판사의 그림책 14권을 동요로 만들어 부른 이색적인 음반이다.

14권의 그림책 제목을 그대로 노래 제목으로 활용했으며 노래는 도깨비마을 김성범(56) 총장, 노래깨비아이들, 인천 알핀로제어린이요들단, 한국어린이요들합창단, 꽃님이 밴드 등 전국 어린이와 단체가 참여했다.

노래 전곡을 작사·작곡한 김 총장은 “그림책 이야기가 음악과 어우러지면 동요를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도깨비마을 창작동요음반.

해 이번 음반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깨비마을에서 직접 판매하는 USB 휴대용 저장장치에는 12번째 창작동요 노래와 함께 반주, 악보까지 함께 담겨 동요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조만간 디지털 음원으로도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 내년 26개 사업

국·도비 반영 건의키로

보성군에서는 내년 국·도비 예산확보에 나섰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국가 및 전남도 재정계획에 반영할 93건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26개 신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전남도와 정부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어린이 바다체험 학습장 조성(120억원) ▲온돌문화 체험단지(90억원) ▲패류양식어장 재배치(500억원) ▲동운천 보성강생태공원 조성(100억원) ▲남도산립교육문화 테마랜드 조성(250억원) ▲보성북내~화순남면간 도로(430억원) ▲국도18호 보성을 진입도로 개선사업(150억원) 등이다.

보성군은 또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전남도와 관련부처를 지속적으로 찾아 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 전통 쌀엿 만들기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0일, 보성군 득량면 기동마을에서 주민들이 득량만 간척지산 쌀·보리에 엿기름을 이용하여 전통 쌀엿을 만들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고흥군 내년 국고 지원 사업 65건 발굴

고흥군은 내년 국고 지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 65건, 815억 원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은 3월까지 지역에 필요한 국가 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며, 발굴한 사업은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 국비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 국비 지원이 필요한 고흥군의 신규 사업은 ▲고흥청년 CEO 창업률 조성(6억 원) ▲고흥권역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60억 원) ▲귀산촌·임업인

산림소득작목 단지 조성(10억 원) ▲고흥만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200억 원) ▲품질관리형 마른김 검사소 건립(30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20억 4000만 원)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10억 원) ▲고흥 도시 침수 예방 하수도 정비(18억 원)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20억 원) 등이다. 군은 지난 17일 군청상황실에서 2019년을 준비하는 ‘국고 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갖고 국고 건의 사업의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곡성으로 주소 옮긴 고교생·대학생 30만원 지급

곡성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고교생과 대학생들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다른 지역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하는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전입 신고 뒤 3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우선, 곡성군으로 전입하면 연 2회로 나눠 10만원씩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2년간 주소 변동이 없으면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곡성 한울고와 전남조리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젊은층 인구 유입 및 전체 인구 늘리기를 염두에 둔 대책이다. 곡성군은 지난 18일 이들 학교를 방문, 학교장을 면담하고 캠프인 참여 협조 등을 요구한 상태

로, 곡성고와 옥곡고, 전남과학대도 잇따라 방문해 전입 지원 정책과 인구 유입을 위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곡성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가 이기 UCC 경진대회와 농업관련 학과생 워크숍 개최 등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곡성은 인구 3만명(지난해 말 기준 3만131명) 지키기를 위해 ‘곡성 사이드’ (사이좋은 이웃들이 다 모이는 곳)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사이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청년·교육정책을 발굴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곡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